

5.18과 모성

-5.18 소설의 모성 재현을 중심으로

정영진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강의초빙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피해자/희생양 어머니 표상의 이면
- 3 이동하는 모성의 윤리적 감각과 정치성
- 4 ‘검은 장막’의 모성, 생명, 그리고 역사의식
- 5 결론

이 글은 5.18 소설에서의 모성 재현 양상에 주목하여, 역사적 희생자 혹은 피해자로 모성을 바라보는 고정된 관념을 해체하고, 모성 신화 이면의 남성중심의 지배적 인식 틀을 확인하면서 역사적 고통의 순간에 나타나는 모성의 다면성을 살피고자 했다.

5.18 소설에서 어머니들은 역사적 피해와 희생의 고통을 상징하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것이 5.18 모성의 전부는 아니다. 그녀들은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신들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이동하는 주체로 나서며 젠더 정체성을 해체하고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노정한다. 직접 시위에 참여하면서 실천과 투쟁의 한복판에서 이전과 다른 개인 주체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발현되거나, 모성의 양심에 따른 반성적 주체로서 공동체적 시야를 확보해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순간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어머니의 몸이다. 5.18 소설에서 모성의 육체성은 순응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천적, 정치적 결단을 이루는 동인이 된다. 5.18 소설에서 재현된 모성에는 생명과 사랑과 더불어 죽음과 저주, 폭력과 공허가 공존한다. 모성 그 자체는 하나의 본능적 생명성을 간직한 개별자의 속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일상 속에서 자녀를 생명적 존재로 인식하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인간 생명 자체를 새롭게 인식하는 모성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5.18 소설에서의 모성의 정치성은 개별적 몸의 경험을 통해 윤리적 감각의 회로를 거치며 구축되었다. 모성의 윤리적 감각이 정치성과 접속되는 양상은 모성적/여성적 사유를 기반으로 정치적인 것을 재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다채로운 모성 주체의 모습은 숭고한 모성 신화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또한 이것은 공적인 기억으로 박제화될지도 모를 5.18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재구성할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문핵심어: 5.18, 모성, 재현, 모성 신화, 여성, 몸, 이동(성), 정치성, 윤리적 감각, 역사인식

1 들어가며

5.18의 역사적 실체가 밝혀지고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광주시민의 민주화 운동의 의의가 인정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5.18의 제도화’는 5.18 민주항쟁의 다의적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고 고정하는 과정으로 보이기도 한다.¹ 이를 두고 한 논자는 5.18이 국가 관리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² 5.18의 경험을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적 상상력을 갱신할 수 있는 원천 혹은 기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5.18의 제도화 과정은 5.18의 정치적 생명성이 박제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5.18 광주에서 실현된 공동체를 ‘죽음을 무릅쓰고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려 했던 최고의 자발성에 기초한 절대적 공동체’³로 인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5.18이 과거의 군부독재 시절에 ‘벌어졌던’ 일로 취급되지 않고, 그 가치와 의의가 현재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의의를 지닐 수 있도록 의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18과 관련된 문학 연구 분야에서도 개방적 시선이 요청된다. 5.18 문학을 보고와 증언의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 성과들이 많은데 이를 바탕 삼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⁴ 그것은 어쩌면 5.18이라는 사건의 확실성, 투명성을 뚫고 불투명한 지점에서 시작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령, 5.18 문

1 이광일, 「지구화 시대 한국의 진보운동과 5.18 민주항쟁의 현재적 재구성」, 조희연·정호기 편, 『5.18민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2009, 361쪽. 이 글에서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헤게모니 속에서 축소, 배제된 목록들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독점자본의 지배력 과정에서 드러난 불균등 발전의 모순의 문제, 대중의 참여와 결속, 소수자의 존재와 삶을 왜곡시키는 억압적 사회관계들과 그것을 재생산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고발과 저항의 의미가 그것이다. 366-369쪽.

2 정일준, 「5.18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 관계」,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4, 107-111쪽.

3 김상봉, 「응답으로서의 역사」, 조희연·정호기 편, 앞의 책, 416-419쪽.

4 안혜련은 5.18 소재로 한 문학 텍스트가 문학적 평가 대상이라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온 사태를 지적하며, ‘보고 문학’의 틀에서의 5.18문학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안혜련, 「5.18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 양상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2.

학에서 다뤄지는 죽음은 군부독재에 의한 시민 학살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 작동하는 무의식적 공포와 섹슈얼리티의 문제, 몸의 현상 및 인간의 창조적이고도 파괴적 본능의 작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5.18 시공간의 문학적 재현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과 생명 인식이 역사인식의 불안정한 국면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5.18 문학에서 보이는 지배적 감정인 죄책감 아래 드러워진 원죄의식과 그것을 보상하는 초월적 자아 팽창의 문제를 다뤄볼 수도 있겠다. 역사적 주체 형성과 관련해서 비이성적 공간에서 합리성이 발현되는 양상이나, 5.18의 자유와 정의의 문제가 이후 세속적인 소시민적 주체의 내면에서 어떤 양식으로 조직되는가 등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5.18 소설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살핀 연구들은 주로 여성 재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5.18의 정치적 유산을 젠더의 차원에서 재구성하고자 했다. 심영의는 5.18 소설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살피면서 여성성의 문제를 명백하게 이끌어내고 확장하여 그것들에 목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5월 담론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⁵ 물론 인간 존엄의 가치로 5.18을 바라보는 관점은 5.18의 의의를 확장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탈정치화의 문제 또한 포함하는 것이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 논의는 5.18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해냄으로써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역능과 연대의 잠재성을 조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5.18 소설에서 피해자화되고 타자화로 고착된 여성의 의미를 넘어서 5.18 여성 주체의 잠재력을 살피는 이경의 「비체와 우울증의 정치학」⁶, 여성의 정체성 정치를 여성 주체의 역동성과 순환성, 생명성 등을 통해 고찰하는 안혜련의 「5.18 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 양상 연구」⁷는 제도적 민주주의 정치 운동의 한계를 돌파해내는 문학의 정치성을 탐색하는 유의미한 선행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모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5 심영의, 「5.18 소설의 여성 재현 양상」,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6 이경, 「비체와 우울증의 정치학-젠더의 관점으로 5.18 소설 읽기」, 『여성문학연구』 제1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 안혜련, 앞의 글.

모성은 여성성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소략하게 정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모성을 역사적 수난의 제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5.18 문학에서의 모성은 역사적 고통 중에서도 내상을 극화한다. 민주주의 성취 과정에서 시민/민중이 겪었던 고통의 상징으로 5.18 소설의 어머니들을 바라보고, 그녀들의 박탈을 정치적으로 읽어내는 일은 소중한 작업이다. 하지만 피해자/희생자로 모성을 초점화할 때 모성 신화가 강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여성에게 억압의 기제로 작동할 소지가 있다. 고통을 감내하는 모성의 희생과 숭고함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고정하고 그것을 미화함으로써 개별 주체인 여성의 다양한 선택과 행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5.18 문학에서 피해자/희생자로 모성을 읽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5.18 과정에서 병든 아버지는 왜 잘 등장하지 않는가?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겪어낸 이 땅의 어머니가 재현될 때 보통은 강인한 면모를 드러내는 데 비해 유독 5.18 문학의 모성은 피해자와 희생양의 형상으로 재현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자식을 잃고 미친 어머니들은 누가 돌보는가? 그녀들의 자식들은 모성을 어떻게 대하고 기억하며 그것이 5.18을 의미화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글에서는 5.18 소설에서의 모성 형상을 재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눈여겨보고자 하는 부분은 5.18을 경험한 어머니들의 몸과 말이다. 재클린 로즈의 말은 곱씹어 볼 만하다. “어머니는 본성상 체제 전복적이며 한 번도 겹보기나 세상의 기대치와 일치했던 적이 없다.”⁸ 5.18 소설 속의 모성 재현을 꼼꼼히 살펴보는 작업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던 모성의 관념 틀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가령, 우리는 모성을 통해 5.18 이후 분노와 죄의식의 근원을 탐구할 수 있는 집단 무의식의 생성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정치적, 저항적 실천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5.18 소설 속 모성이 심신미약/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역할 외에는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 없는 여성 주체로 재현되는 문제를 다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모성을 절대화하고 숭배하는 경향의 이면이

8 재클린 로즈, 이영아 역, 『숭배와 혐오-모성이라는 신화에 대하여』, 창비, 2020, 30쪽.

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5월 광주항쟁 소설집-일어서는 땅』(인동, 1987)과 5월 문학 총서 간행위원회가 엮은 『5월 문학 총서 2』(5.18기념재단, 2012)에 실린 소설들을 검토했다. 특히 모성 재현의 특이성이 보이는 소설인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 김남일의 「망명의 끝」, 김중태의 「모당」, 한승원의 「당신들의 돈도가네」,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공선옥의 「목마른 계절」, 심상대의 「망월」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모성의 경험 및 모성에 대한 경험을 살핌으로써 이 글에서는 가부장적 질서 아래 역사적 고통에 관한 기억술의 제한성을 밝히고 젠더 차원에서 내파 가능성을 탐구해볼 것이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이동하는 주체가 된 모성의 윤리적 판단과 정치성의 결합, 모성적 생명 인식과 역사 인식의 관계 등은 5.18의 역사적 유산을 불러나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심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 피해자/희생양 어머니 표상의 이면

5.18 소설에서 고통스럽게 묘사되고 있는 어머니들은 대체로 광주에서 ‘아들’을 잃는다. 작가들이 역사적 비극으로 5.18을 재현하고자 할 때, 자식 잃은 어머니를 등장시키는 일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에 해당하는 것이 자식의 죽음이기 때문이며, 당시 광주는 이러한 어머니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식을 잃고 생긴 내상은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기에, 이후 비통한 어머니의 삶은 5.18 참상의 강도와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드러내는 적합한 소설적 제재라 할 수 있다.

5.18 소설에서 죽은 자식이 대부분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점 역시 의외의 지점은 아니다. 가부장제 아래서 억압된 여성은 모성의 이름으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특히 대를 이을 아들을 낳고 기르는 일은 유교적 전통문화에서 여성의 주된 임무였다.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도 근대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아들’을 키워내는 여성 교육과 교양이 강조되었다. 1970, 80년대까지도 남아선호 사상은 뚜렷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다. 유교적 관습에서 아들 중에서도 장남의 지위는 특

별했다. 5.18 소설 속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은 대부분 하나뿐인 아들을 잃거나 장남을 잃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며,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 5.18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순태의 소설 「일어서는 땅」에서는 두 어머니가 등장한다. ‘조마리아’는 5.18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가 실종된 아들 ‘토마스’의 어머니다. 그녀는 그 충격으로 실성한다. 조마리아는 거의 실신 상태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신기하게도 아카시아꽃이 필 무렵이 되면 정신성을 회복한다. 사라진 아들 토마스를 찾으러 가야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깨어나는 것이다. 남편 ‘박요셉’은 아내의 채근으로 6년째 광주로 ‘아들 찾기’에 나선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어머니는 박요셉의 어머니다. 박요셉은 아들을 찾으러 광주로 향하는 아내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여순사건 때 반란군이 되었다는 큰아들의 행방을 쫓다가 실신한 이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아내 조마리아는 비슷한 운명의 어머니였다. 박요셉의 어머니에게 장남은 각별했다. 남편이 식민지 시기 징용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기자 모든 기대를 장남에게 걸었다. 여순사건 현장에서 아들을 찾으러 가면서 어머니는 말한다. “네 형을 못 찾으면 네 아버지도 만날 수 없단다. 네 형을 만나야 아버지도 만날 수 있는 거.”⁹ 장남을 남편과 동일시하는, 가부장제 질서에 결박된 어머니는, 자기 존재의 전부인 장남을 잃자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작은아들 박요셉은 형을 잃고 실성한 어머니를 ‘흰 공백’처럼 느꼈다.

실신하여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린 후 어머니의 삶은 달걀 껍질처럼 흰 공백으로 텅 비고 말았었다. 비와 바람과 눈을 구별할 줄도 몰랐고, 모든 것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미움마저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신비스러운 정신의 태엽이 모두 풀린 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람처럼 마을 근처의 들과 골짜기를 흐느적거리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을 후복이 맞고 있도 없이 가시만 남은 앙상한 아카시아 숲속에 편안하게 잠들 듯 죽어 있었다.¹⁰

9 문순태, 「일어서는 땅」, 『5월 광주항쟁 소설집-일어서는 땅』, 인동, 1987년, 29쪽.

10 위의 책, 18쪽.

‘흰 공백으로 텅 빈’ 어머니는 인지 능력과 감정을 잃었다. 어머니는 ‘정신의 태엽이 모두 풀린 채’로 마을 근처를 배회하다가 죽음을 맞는다. 어머니의 죽음은 평화롭게 묘사된다. 아마도 어머니는 죽기 전부터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기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무위의 ‘공백’의 존재였기에, 추운 겨울 숲속에서 눈을 맞으며 맞이한 죽음은 전혀 자극적이지 않다.

6년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조마리아와 그의 남편 박요셉 부부를 버스정류소에서 만난 이웃들은 경탄한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달걀 껍질처럼 속이 텅 빈 채 녀이 나간 모습 그대로 하릴없이 들판을 흐느적거리던 박요셉의 아내”¹¹가 신기하게도 이맘때 정신을 차리기 때문이다. 박요셉의 아내 역시 그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속이 텅 빈’ 존재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어머니가 ‘속이 텅 빈’ 모습이 되기 직전 우람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내와 어머니가 각각 광주와 남쪽 항구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여정에 함께 했던 박요셉은 그녀들의 존재감을 대단히 크게 느꼈다. “박요셉에게 그때의 어머니가 지리산만큼이나 덩치가 커 보였던 것처럼, 지금 그의 앞에 걷고 있는 아내의 모습 또한 구차스럽긴 해도 무등산만큼이나 우람하고 거대하게 보인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덩치 큰 모습에 비해 자꾸만 왜소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¹² 주목할 점은 ‘거대한 모성’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왜소함을 경험하는 남성의 감정이다.

각각 지리산과 무등산에 비유되는, 거대한 생명 세계인 절대적 모성 관념에 압도되어 위축감을 느끼는 남성 심리를 단순히 모성에 대한 찬양으로 보아 넘길 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텅 빈’ 존재와 짝을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거대한 모성’과 ‘텅 빈 모성’은 아들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어머니의 존재는 그 자신으로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가부장제 현실의 리얼리티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양극적인 모성 재현의 양상은 모성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주요한 요소들을 은폐하기도 한다. 5.18을 비롯한 역사의 고통스러운 국면에서 모성의 피해자성이 강조될 때, 언제나 모성의 양극성이 상정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된

11 위의 책, 24쪽.

12 위의 책, 43쪽.

모성 이미지는 여성들이 분열적이고 히스테릭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아들을 잃고 실성한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배회’한다. 앞에서 보았듯 숲이 나 들판, 혹은 거리를 배회한다. 한승원의 소설 「당신들의 몬도가네」의 안순 누님은 홀로 키우던 두 아들을 5.18의 현장에서 잃는다. 한 아들은 시체로 발견되었고, 다른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후 그녀는 산과 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헤매다녔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쇠고랑에 묶여 지내게 되는데, 상태가 좋아져 퇴원한 후에도 그녀는 한밤중에 집을 나서 새벽녘 찬 이슬을 흠뻑 맞고 돌아오길 반복했다. 소설에서 그녀는 ‘완전한 백치’가 되었다고 표현된다.

자식의 죽음과 함께, 의사(疑似)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5.18 소설의 어머니들은 자식과 분리되지 않은 모성의 형상이기도 하다. 레비나스는 자녀의 존재를 에로스, 죽음 등과 더불어 타자성 현현의 상태로 이해한 바 있다.¹³ 그에 따르면 타자는 주체성 정립에 관여한다. 비대칭적 관계에서 타자성의 현현은 주체를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5.18 소설에서 어머니들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강력한 타자성의 현현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들은 주체 붕괴를 경험하며 스스로 죽음에 붙들려 있게 된다. 이는 애도의 실패이다. 이러한 모성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처를 드러내며 5.18의 메타포가 된다.¹⁴

실성한 어머니들의 또 다른 특징은 말을 ‘않는다’는 점이다. 표현 불가능한 고통은 언어를 파괴한다. 극단적 폭력으로 아들을 잃고 백치가 된 어머니들이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는 없다. 아들의 묘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심상대의 「망월」에서 어머니는 끝없이 독백을 한다. 그 독백은 혼잣말이거나 죽은 아들과 홀로

13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112-114쪽 참조.

14 5.18 소설의 모성 주체가 보이는 애도의 실패와 그에 따른 자아 상실의 문제는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까닭에 여기서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적 애도와 더불어 사회적 애도의 차원이다. 공동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애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로는 김석, 「애도의 부재와 욕망의 좌절」, 『민주주의와 인권』 제1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57-83쪽 참조. 이와 더불어 이후의 역사적 사건과 흐름에서 살피는 일도 간과할 수 없다. 가령, 광영빈은 ‘전두환 사면’이 5.18 재현 모델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광영빈, 「애도의 우울증적 반복강박과 흩어진 사자의 트네모시네 5.18, 사면, 그리고 아버지 바르부르크」, 『안과 밖』 제50호, 2021, 308-346쪽 참조.

나누는 대화이다. 이처럼 언어의 과잉에 매몰되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침묵 속에 빠져드는 어머니도 존재한다.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고 이후에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생계도 내팽개친 채 외출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는 뒷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소설의 화자인 어린 딸은 자신을 방치하고, 말을 잃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공포를 느낀다. 눈자위가 온통 시뻘개진 엄마를 보며 딸은 말한다. “눈물 대신 눈가에 피가 모였던 거겠지. 나는 새빨간 눈물이 흘러내릴까 봐 그것도 무서웠어.”¹⁵ 고통 속에 잠긴 엄마는 말을 잃었고, 대신 혼자 방에서 온몸을 뒹굴며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5.18 재현에서 실성한 어머니는 5.18의 극한 고통의 상징이 된다. 극한의 고통은 인간다움과 여성의 개별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¹⁶ 의식성의 상실은 어머니들이 생존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인간 주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언어를 적절히 구사할 수 없는 상태는 자기동일성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와 연동하는 신체화 현상은 동물처럼 울부짖거나, 침묵에 잠기거나, 자기통제력을 상실한 배회하는 행위 등이라 할 수 있다.

고통에는 종류도 구별되는 색채도 없다. 모든 고통은 한길로 통하는지도 모른다. 한번 들어서면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 길 위에서 모든 사연들은 그저 강도로 치환될 뿐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¹⁷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어린 딸은 언어를 통해 엄마와 소통할 수 없다. 딸은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불안과 공포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15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5월 문학총서간행위원회 편, 『5월 문학 총서 2. 소설』, 5.18기념재단 2012, 269쪽.

16 이러한 문제는 5.18 경험을 구술한 여성들의 기억서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김영희, 「5.18 기억서사와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연구』 제18호, 한국여성연구소, 2018, 178-181쪽 참조.

17 최윤, 앞의 책, 299-230쪽.

딸은 훨씬 더 어머니의 감정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마련이지만, 아들 역시 강도는 다를 뿐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18 당시 광주에서 아들을 찾아 헤맸던 박요셉은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형의 시체를 찾고 돌아올 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의 울음은 형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숨 쉬는 나무토막처럼 정신의 중심을 잃고 실신해 버린 어머니를 떠나면 고향까지 놓치지 않고 끌고 갈 일이 너무 압담하고 무서워서였다.”¹⁸

상처받은 어머니를 짊어진다든 것, 실성해서 밤이고 낮이고 배회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고통은 5.18의 상처의 범위를 생각해보게 한다. 모성은 ‘나’를 있게 한 실제적이면서도 원초적 기원이다. 모성은 출산과 함께 ‘나’를 돌보는 존재이다. 모성의 돌봄을 받지 못한 그의 자식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다루는 영역의 손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5.18의 실성한 어머니 혹은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은 5.18의 고통이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흘러가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더불어 명기할 것은 병든 모성이 남은 가족 혹은 친척의 관찰과 보호를 받게 될 때 대체로 남편이나 차남 등에 의해 돌봄을 받는다는 점이다. 내상을 입은 모성의 보호자는 여성이 아닌 대체로 남성들이다. 이들은 5.18로 인해 5.18 이전의 모성이기를 그친 어머니, 즉 모성 상실을 경험한다.

상실된 모성은 돌이킬 수 없음, 치유될 수 없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남성 중심의 질서 하에 구축된 절대적이고도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성 신화를 감안할 때, 모성 상실의 경험은 심각한 분노와 고통의 경험이다. 우리는 여기서 결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고통이라는 감각을 짐작할 수 있다. 어설프게 이해받고 싶지 않은 심정, 자신들만이 느낄 수 있는 내밀한 고통에 대해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쉽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5.18이 공적인 장에서 역사적 고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고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들뿐임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시에 그들만이 감당하고 이어갈 수 있는 역사적 책임—어감이 다르지만 부채감이기도 한—의식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18 문순태, 「일어서는 땅」, 앞의 책, 22쪽.

3 이동하는 모성의 윤리적 감각과 정치성

5.18 소설 속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이탈한다. 어머니들은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로 들어가거나(「일어서는 땅」), 아들이 묻힌 묘지로 향한다(「망월」). 또한 도피한 아들이 숨어지내는 낯선 곳으로 찾아가는 어머니가(「모당」)가 있는가 하면, 아들이 죽은 후 광주에 들어가 시위대와 함께 하는 어머니도 존재한다(「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이 어머니들은 남성적 지배질서에 대체로 순응적인 여성들이었다. 젠더 구분의 사회적 구성에서 공간적 구분은 비교적 명확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는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성별화되어 인식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5.18 소설 속 어머니들은 자신에게 할당되었던 제한적 장소에서 벗어난다. 이들은 대부분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아들의 행위의 결과로 이동하는 주체가 된다.

고정되고 비교적 안정된 공간적 범주를 넘어서는 이 어머니들은 5.18 사건을 통해 일상적인 여성이 아닌 강인한 여성으로 변한다. 「일어서는 땅」의 박요셉과 조마리아 부부는 아들을 찾아 광주에 들어서기 직전의 고갯마루에서, 마침 광주 시내를 빠져나온 사람들로부터 광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권유 받는다. 그래도 아들놈을 데려와야 한다고 울먹이는 박요셉의 말에 이들은 관을 짊어지고 가라고 빈정거렸다. 총소리가 나는 광주로 향할 때, 아버지 박요셉은 총소리의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 조마리아는 쉽 없이 고갯마루를 올라갔다. 광주에서 시체들을 보자 그녀는 심하게 구토를 계속했지만 일일이 시체의 얼굴을 확인한다. 「모당」의 어머니 역시 광주의 거리로 뛰어나갔고, 계엄군의 총소리에 시민군과 학생들이 학살되는 현장으로 갔다가 시체안치실에서 아들을 찾고자 한다. 그녀는 시체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극심한 현기증에 기절하기를 반복하면서 시체를 확인해갔다.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지독하기까지 한 어머니의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의 표지를 초월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여성을 본능적인/육체적인 존재로 사고하는 관습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희생과 이타심, 무조건적인 용서의 아이콘인 어머니는 ‘집’과 같은 한정된 장

소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로 상상된다. 모성의 숭고함은 엄청난 사건들을 ‘자기 자리’에서 떠맡는다. 보통 모성은 늘 한 자리에서 자식과 관련된 고통이라면 한없이 감당할 수 있는 ‘내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당신들의 몬도가네」의 ‘안순누님’의 형상은 이것의 전형을 보여준다.

나는 언젠가 본 몬도가네 영화 한 대목이 생각났다. 어미새들은 하얀 알을 품고 있었다. 그 알은 왼쪽실험 때 방사능을 쬐어 죽어 버린 알들이라고 해설자는 말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을 품은 채 눈을 끄덕거리고 있는 어미새들의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아프게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었다.¹⁹

인용문은 ‘안순누님’이 두 아들을 잃고, 그중 행방불명된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다 죽게 된 소식을 들은 ‘나’의 반응이다. 죽어 버린 알을 하염없이 품고 있는 어미새의 모습은 전형적인 모성 표상이다. 객관적인 사실, 즉 생명성을 상실한 알에 대해 어미새는 알 길이 없다. 그저 해오던 대로 알을 품는 일, 어머니의 역할을 묵묵히 한 자리에서 수행하는 일이야말로 희생적인 모성 정신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뭉클한 것’으로 경외감을 자아낸다.

그러나 5.18 문학에서의 모성이 피해자 혹은 희생자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 ‘이동’하는 모성의 재현을 간과하기는 어렵다. 많은 5.18 소설에서 어머니들은 움직인다. 어머니의 이동은 장소의 변화 및 중첩을 동반하는데, 이에 따라 모성의 육체성의 리얼리티가 나타난다. 이는 공간 분할에 따른 젠더 정체성을 해체하면서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보여준다.

엄마는 춤을 추는 것 같았어. 춤을 추면서 학처럼 나는 것 같았어. 거리를 메우고 있던 수많은 다른 춤추는 학에게 가기 위해서. (...) 공중에서도 헬리콥터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학들이 일제히 날개를 펼치듯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 마침내 나는 엄마 손목을 양손으로 꼭 쥐고

19 한승원, 「당신들의 몬도가네」, 문순태 외, 앞의 책, 233쪽.

놓지 않았지. 그리고 엄마는 미친 학처럼 춤추러 갔어. 사람들의, 함성의, 뉘새의 홍수에 실려 그 물살에 빠가 녹을 때까지 나도 물살에 섞였지. 점점 더 물살이 높아졌다. 사방에 소리와 높은 벽이 앞으로 앞으로 나를 운반했어. 엄마는 내 손을 으스스하게 움켜잡고 내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앞으로 나갔다가는 밀물처럼 밀려온 했어. (...) 엄마는 딴 세상에서 딴 세상 사람들과 춤추고 있었어. 엄마 얼굴이 그렇게 불그스레하게 빛나는 걸 보는 게 눈이 부셨어.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있는 세상과 한 가닥 인연을 가지려는 것처럼 내 손을 놓지 않았지. 내 머리 뒤에서 합창하는 그 수많은 얼굴들. 잊어버릴 수 없는 얼굴들.²⁰

「자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의 어머니는 광주 시위 현장으로 나온다. 구체적으로 그녀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소설에서 제시되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아들이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다 죽음을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은 엄마를 따라 나선 어린 딸의 눈에 비친 5.18 현장과 시위대 속 엄마의 모습을 담고 있다. 딸에게 거리를 메운 시위대는 ‘춤추는 수많은 학들’처럼 보인다. 엄마는 시위대에 더 가깝게 가려는 듯 춤을 추는 한 마리의 학에 비유된다. 시위대는 또한 ‘거대한 물살’에 비유된다. 이 물살에 빠가 녹을 듯이, 물살의 움직임에 섞인 엄마는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난다.

시위 현장에 나선 엄마의 몸은 이전에 알던 모습이 아니다. 아들을 잃고 침묵에 갇혀버리거나 홀로 방안을 구르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몸은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이룬다. 그런 엄마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인 익명적 모습인 동시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고유한 빛을 내뿜는 존재로 묘사된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에서 5.18 모성의 육체성(bodiliness)은 원초적 저항의 힘을 보여준다. 자식을 잃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거리로 나온 엄마는 5.18이 이념이나 대의를 추구하는 의식적인 실천의 국면을 넘어서고 있을 보여준다. 시민의 분노와 절규의 에너지가 어떻게 모여 하나의 흐름을 이루었는지, 집

20 최윤, 앞의 책, 325-326쪽.

단적 정체성 차원에 함몰된 개인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얼굴을 갖고 있듯 고유성을 지닌 개인들이 어떻게 집합적인 존재로 나서며 실천과 투쟁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소설은 심미적으로 그려낸다.

「모당」의 어머니는 광주 시내로 들어갔다가 계엄군의 총알에 쓰러져가는 시민군을 목도한다. 그녀는 아들이 살아있을 것 같지 않았다. 시체안치소로 향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포기해 버렸다. 불가피한 노릇이었다. 내 자식의 목숨이 귀한 줄 안다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술한 젊은이들이 어찌 남의 자식이기만을 바랄 수 있더라 말인가. 아무리 좁아터진 여편네의 소견머리일지라도 그건 상상만 해도 철면피의 양심이며 낮 뜨거운 일이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누가 싸우다 죽으랴 싶었다. 하지만 폭폭하고 억울하고 서러웠다. 견딜 수가 없었다. 피울음을 묻고, 이제 남은 일은 싸우다 죽은 아들의 시체나 끌어오는 일이었다.²¹

어머니는 ‘피울음을 묻며’ 아들의 생존에 대한 기대를 단념한다. 남의 자식만이 죽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라는 모성의 윤리가 작동했던 것이다. 내 자식만 살기 바랐던 자신을 자각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이 어머니는 생각한다. ‘내 자식이 아니면 누가 싸우다 죽으랴’ 억울하고 서럽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스스로 각성한다.

모성적 경험과 사유를 평화적 정치학의 차원으로 확장하고자 했던 사라 더릭은 모성적 활동이 잠재적으로 양심적 활동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훈육이 양심의 활동이자 양심성이 훈육의 성공 기준이 될 때, 어머니의 목표는 반성적 판단 책임을 자신 안에 지속시키고 또 그것을 아이의 마음 안에 개발시킨다²². 「모당」의 어머니는 광주 현장에서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대하는 자신의 이중적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자식만은 살아있기를 바라는 본능적인 모성의 한계지점을 직시한다.

21 김중태, 「모당」, 문순태 외, 앞의 책, 163쪽.

22 사라 더릭, 이해정 역, 『모성적 사유-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 현실사, 2002, 198쪽.

스스로 ‘아무리 좁아터진 여편네의 소견머리일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고자 이 어머니는 모성의 양심과 반성적 능력을 보여준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 어머니는 바닷가 외진 곳에 은신처를 마련해 아들을 머무르게 했다. 소설은 어머니가 이 은신처로 아들을 만나러 가는 여정과 아들을 찾으러 온 형사를 피해 다시 아들과 헤어지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머니는 어느 해안마을의 버스 종점에 내려 사람들의 시선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어둠을 기다려 움직인다. 해안길을 걷는 어머니는 언덕과 비탈, 바윗등을 오르내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의 몸은 곤죽이 된다.

전신에 땀이 배어났다. 비교적 평탄하게 이어지던 해안길이 끝나고 반비알진 오르막 돌길이 시작되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몸을 적시었다. 치맛자락은 지르잡아 올려도 물걸레처럼 풀이슬에 젖어 질퍽거리며 두 다리를 휘감았다. 발엔 돌부리가 채였다. 한 번씩 세차게 걷어 채일라치면 온몸이 부서져내리는 듯한 통증이 엄습해 오며 머리끝 모공까지 아렸다. 그보다도 발을 헛디딜 때면 잔등으로 소름이 끼쳐오면서 식은땀이 솟구치고 정신도 몽롱했다. 몸은 곤죽이 되었다.²³

탈장소화된 모성의 몸은 관념화되고 이상화된 몸이 아니라 구획된 경계를 벗어나면서 낮선 공간 속에서 피와 땀, 눈물과 같은 ‘비체’의 존재를 드러낸다. 어둠을 기다려 움직이는 어머니 몸은 비가시적인 형태를 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은 분명한 형태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전신에 배어나온 땀과 그로 인해 몸에 감겨드는 치맛자락으로 어머니의 형상은 뭉개진다.

이러한 현상은 그녀가 이동하는 장소의 특성과 연결된다. 해안의 비탈과 언덕은 이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그녀의 몸과 행위에 곤란함을 부여한다. 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은 곤죽이 되고 있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정갈하고 단정할 수 없는 어머니의 신체는 5.18을 겪는 내면의 불안과 생명의 본능이 착종된 형태의 불확정성을 노출한다. 그런데 모성의 육체성의 비체적 성격은 동시에 유

23 김중태, 앞의 책, 158쪽.

동성과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의외의 정치적 결단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자원이 되기도 한다.

아들의 은신처에 형사가 찾아오고, 집주인이 형사와 대화하는 소리를 안에서 숨죽여 듣는 아들은 공포와 절망에 기가 질린다. 방금까지 어머니에게 이제 싸움은 시작이다, 언제든지 목숨은 내던질 각오가 되었다고 말하던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판판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말한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사람은 어떡크림 죽느냐가 문제인 거니라. 니 동무들도 그렇크림 죽었잖느냐.”²⁴ 방금까지 목숨은 소중한 것이라고 아들을 달래던 어머니였다. 하지만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닥치자, 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는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제 마지막 함께 죽어야 하는 운명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녀는 아들에게 자장가라도 불러주고 싶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들의 볼을 적시었고, 아들의 눈물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적시었다. 그녀는 두 팔에 힘을 넣어 힘있게, 힘있게 끌어안았다. 뜨겁고 질박했다.²⁵

아들을 찾아 나섰던 어머니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항쟁하는 광주 현장에서 역사적, 정치적 주체에 대한 각성을 했다.²⁶ 그녀의 남편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 반독재 운동을 하다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었다. 어머니는 남편

24 위의 책, 179쪽.

25 위의 책, 182쪽.

26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에민 너를 찾으러 천방지축 죽을 등 살 등 모르구 생지옥을 쫓아댕길 직에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봤니라. 에미 눈에 비치는 사람들은 태반이 어린 철부지 학생들이구, 분수대 앞에서 피 흘리며 맨주먹 불끈 쥐구 외치다 거꾸러진 젊은 이들은 일당벌이루 어렵게 살고 있던 작업복대기 청년들이드라. 징말루 죽기 아니믄 살기루 총칼에 무섭을 모르구 맞서 싸우는 걸 봤어. 서당개 삼년이믄 뭘 으편다구, 느이 애비 적부텀 내리 피묻은 과거만 지니구 살다 보니께 에미두 쫓개는 알게 모르께 시상에 대한 고집이 생겼나 부다.” 위의 책, 174쪽.

과 아들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안목이 달라진 것을 스스로 느꼈다. 그랬기에 아들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 사라 더릭은 자녀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모성은 그 스스로 ‘변화의 삶’을 배운다고 말한다. 모성은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녀와 자신을 새롭게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어머니는 자녀를 세계와 삶의 건설적인 행위자로 해석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킨다.²⁷

인용문을 보면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은 채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아들의 볼을 적시고, 아들의 눈물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적신다. 모자의 육체는 눈물을 매개로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눈물은 그들을 결속시키면서 동시에 정치적 주체로 나설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이 된다. 우리 몸의 점액질인 비체는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위협하는 힘으로 저항과 위반을 상징한다.²⁸ 어머니의 눈물은 아들의 정치적 주체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것은 아들의 눈물과 결합하며, 아들을 지키고 싶은 모정과 살고 싶은 아들의 생명 충동과 길항하는 가운데, 정치적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극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현실에서는 모성의 정치성이 아들을 통해 실현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1980년 9월, 대부분 여성 가족들로 구성된 ‘구속자 가족 협의회’가 결성되고, 여기에 참여한 여성들은 이후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결성된 여성단체들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들은 ‘5월 여성회’ 창설(2000년)의 주역이 되는데, 이 단체는 ‘5월어머니회’(2006년)의 전신이다.²⁹ 여성/모성 주체가 직접적인 정치적 주체로 나서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저류에는, 5.18을 몸으로 겪으며 윤리적 감각을 통해 정치성을 체득해갔던 모성의 경험이 깔려 있었다.

27 사라 더릭, 이해정 역, 『모성적 사유-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 현실사, 2002, 160-165쪽 참고.

28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4-25쪽 참조.

29 김귀옥, 「5.18민중항쟁 정신을 평화운동으로 계승하고 있는 오월의 여성」, 『여성과 평화』 제6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20, 69-72쪽 참조. 5.18 항쟁에서의 여성 역할과 항쟁 이후 5월 운동 조직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이후 평화운동을 계승해가는 5월 여성 주체의 활동을 다룬 논문으로는 강현아, 「5.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2004 가 있다.

5.18 소설 속 모성의 정치성은 모성의 양심과 반성적 자기성찰에 기반한 윤리적 감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윤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에 대해 논의를 충분히 하기엔 지면의 한계가 있지만, 기억할 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이 정치적인 것으로 접속될 때, 정치적인 것을 보다 근원적으로 심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분할/분배의 문제는 기능적이거나 공학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지 않고, 공동체와 타자성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적 관점을 경유할 때 ‘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윤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과 별개의 것 혹은 대립되는 영역이어서가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을 재구축할 지점들을 도드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5.18 소설에서의 모성의 정치성이 개별적 몸의 경험을 통한 윤리적 감각의 회로를 거치며 구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까닭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검은 장막’의 모성, 생명, 그리고 역사의식

모성과 생명성의 관계는 너무 자명해 보이는 탓에 진부한 화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모성을 이상화하여 자연과 생명의 기표에 묶어두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가부장 중심적 모성 이념에 종속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성 신화를 사회문화적, 정치적인 관점에서 나아가 무의식적, 심리적 측면에서 다룬 재클린 로즈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는 모성이 불편하게도 ‘죽음’과 매우 가깝다는 점을 새롭게 조명했다. “생명의 탄생은 한때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묘하게 환기한다는 점에서 손에 잡히지 않되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³⁰ 그에 따르면 모성은 탄생과 함께 죽음을 끌어들이며 주체가 생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우리 토마스 찾으러 가야지요.” 토마스의 어머니는 5년 동안 아카시아꽃이 피는 오월이면 오랜 망각으로부터 깨어났다, 아카시아꽃이 시들고 새콤한 냄새의 밤꽃이 너울거리기 시작하면 다시 아들의 이름을 잊고 실신 상태로 들어간다. 연례행사처럼 아들을 찾아 나서면서 그녀는 남편에게 말한다.

30 재클린 로즈, 앞의 책, 38쪽.

“우리 토마스를 가졌을 때는 저놈의 아카시아꽃 향기가 유난히 더 진동했었지요.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요? 토마스를 임신했을 때, 아카시아꽃 향기가 싫어서 바람모퉁이길을 피해 다니던 일 말이요.” “아카시아꽃 이야긴 제발 그만 좀 해.” 박요셉은 아내를 향해 내질렀다.³¹

토마스를 임신할 무렵의 아카시아꽃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이 장면은, 이미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 힘든 줄 알면서도 아내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아서 매년 함께 길을 나서는 남편의 반응이라기엔 의외란 느낌을 준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다음 문장, “오월에 잉태한 토마스는 태어난 지 스무 해째 되는 오월에 아카시아꽃이 태풍에 흩날리듯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³²는 진술에서 짐작할 수 있듯, 아카시아꽃은 토마스의 탄생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그의 죽음의 상징이기도 했다. 아카시아꽃 향기는 토마스가 세상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을 환기한다.

어머니는 토마스를 임신하면서 아카시아꽃 향기를 피했다녔던 기억을 갖고 있다. 임신은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성의 첫 경험에 해당한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면서 낯선 몸을 경험하게 되는 모성은 무엇보다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불안정성을 느끼고 자신의 몸과 태아의 몸을 돌보는 일에 몰두한다. 그것은 행복감과 만족감과 함께 공포스러움을 동반한다.³³ 이러한 공포는 타자성으로서의 죽음과의 접촉을 의미한다. 재클린 로즈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를 가짐으로써 어머니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한다. 어머니는 그리하여 모든 인간 안에 자리한, 자아 조작성 불가능한 것, 의도에 맞게 억누를 수도 없는 것과 접촉하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새로운 힘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즉시 그것을 양도해야만 한다. 그는 소유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³⁴ 아이를 갖게 되면서 부모는 타자성에 노출되고 새로운 주체 정립의 요구를 받게 된다.

31 문순태, 「일어서는 땅」, 앞의 책, 23쪽.

32 위의 책, 23쪽.

33 “임신한 육체를 통해 우리는 우리 본성을 구성하는 동물적 요소에 다가서며, 이는 ‘생명이 갖든 형태의 불안정성’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공포스럽다.” 재클린 로즈, 앞의 책, 213쪽.

34 위의 책, 176-177쪽.

이 소설에서 아카시아 꽃향기는 아들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절대적 타자성을 상징한다. 5.18로 토마스를 잃었던 어머니는 임신 경험 가운데 느낀 기쁨과 행복, 불안과 공포라는 양가적 감정의 불안정성 속에서 잠시나마 모성 주체를 회복한다. 아들의 실종 이후 실신 상태, 앞서 살았던 ‘텅 빈’ 존재로 연명하는 어머니는 임신했던 몸에 기입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원초적 감각을 통해 의식적 존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가 광주로 들어와 무등산을 바라보며 토마스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모습은 5.18 희생자들이 무의미하게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전형적 서사의 결말로 읽힌다. 그런데 죽음과 생명을 담지하는 모성의 육체라는 틀에서 진보적 역사주의가 사유되고 있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 수용하고 감내하는 모성 신화적 환상이 아니라, 여성/모성의 몸에 기입된 감각 속에서 죽음과 생명이라는 타자성과의 접촉으로 주체가 회복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윤의 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에서는 모성이 딸에게 공포심과 죽음의 그림자를 이월시키게 되는 장면이 섬뜩하게 그려진다. 5.18 현장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던 딸은 엄마가 총에 맞는 순간을 곁에서 경험하게 된다. 본능적으로 이 소녀는 엄마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필사적으로 빼내고 도망쳤다.

그리고 소리로 되어 나오지 않는 고통 때문에 너를 더욱 움켜쥐고 있는
엄마 손, 돌처럼 순식간에 굳어져버린 것만 같은 엄마 손, 뜨거운 손, 달아
오른 돌, 내 손을 까맣게 태워버릴 것만 같은 엄마 손아귀에서 손을 빼려
고 너는 미친 듯이 팔을 휘둘렀지.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않으려
고 눈을 감고, 아니면 엄마의 뒤집힌 흰자위를 괴물 보듯 바라보면서. 그
런데 소용돌이 속에서 굳어져 버린 엄마의 손이 너를 놔주지 않았어. 너
는 이미 마른 장작처럼 쓰러지는 엄마의 무게에 끌려가면서 다른 손으로,
그래 잔인하게 엄마 손가락의 갈퀴리를 하나씩 떼어내려 했어. 그다음에
너는 어떻게 했지? 눈을 크게 뜨고 1분도 안 될 순간에 네가 한 일들을 천
천히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돌려봐. 독이 퍼져 네 몸을 태우더라도,
억눌린 뜨거운 호흡에 네 피가 말라 가루가 되어버리더라도. 너는 급기야

한 발로 엄마의 내팽개쳐진 팔을 힘껏 누르고 네 손을 빼어냈어. 엄마의 근육살이 발밑에서 미끈거렸지. 너는 사력을 다해 밟았어. 그러고는 무더기로 이동하는 무리를 피해 달아났지 몇 얼굴을 밟았는지도 모르는 채, 몇 얼굴이나 네 다급한 발길로 차 내던졌는지도 모르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어. (...) 엄마의 손이 점점 늘어나 나를 다시 덮칠 것만 같아서 두 손을 겨드랑이에 끼워 넣고, 아 발밑에서 미끈거리던 엄마 팔의 느낌. 내 손아귀 속에서 아직도 뜨거운 엄마손의 촉감.³⁵

시위 현장에서 엄마가 총에 맞기 직전까지의 상황은 일인칭 화자인 딸의 목소리로 펼쳐지다가, 엄마 손에서 빠져나오려는 순간은 2인칭 화자의 목소리로 제시된다. ‘나’로 통합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기애 ‘너’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놔주지 않는 엄마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고, 급기야 발로 엄마의 팔을 밟아서 자기 손을 빼내 달아나는 딸은 이후 ‘걸어다니는 시체’ 혹은 ‘살기를 그친 사람’처럼 정신줄을 놓고 배회하며 살게 된다. 소설에서 그녀의 삶은 ‘죽음 속의 삶’³⁶으로 명명된다.

죽음은 죽은 자에게는 사건이 아니다. 그 죽음은 남아 있는 사람에게만 혹독하게 생생한 사건이 된다. 죽음은 대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죽음은 완성되어야 할 것의 미완성이기 때문에. (...) 우리가 어느날 그녀를 만난다면 그녀는 우리에게 죽은 사람 이상의 고통을 줄 것임에는 틀림없다. 바로 그녀가 살아있음으로써. (...) 살기를 그친 산 사람을 만나는 일이 보는 이에게 얼마나 극심한 고문일까. 이것을 사람들은 단순히 미쳐버렸다고 자주 말한다. 얼마나 간단한 말인가.³⁷

‘살기를 그친’ 이 소녀를 통해, 독자는 5.18의 고통이 죽음 이상의 고통임을 보게

35 최윤, 앞의 책, 327-328쪽.

36 위의 책, 317쪽.

37 위의 책, 331쪽.

된다. 인용한 부분은 5.18을 직면할 때 동반되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간단히 ‘미쳐버렸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수궁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참상과 고통을 마주하며, 온전히 그 내부로 근접해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 중 하나는 5.18의 이미지가 현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와 산산조각 내 버리는 현상을 살피는 것이다. 광주 소설의 모성 재현은 견고한 모성 신화의 불확정성과 불안정성을 노정(露呈)함으로써 5.18의 실제성을 현시한다.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어머니들과 죽은 어머니로부터 도망치면서 미쳐버린 딸의 형상은 역사적 불안과 공포가 어떻게 현재의 시간 속에 기입되어 있는지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인용문에 쓰인 것처럼 ‘완성되어야 할 미완성으로서의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물음의 형태로 남겨지듯, 5.18의 광주는 그렇게 현재의 삶에 ‘검은 장막’을 드리운 것이다.

소녀는 죽은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검은 휘장’의 환상에서 사로잡힌다. “눈만 뜨면 동일하게 다가오는 검은 휘장. 아니 눈만 뜨면 나는 허겁지겁 내 얼굴을 두꺼운 휘장으로 덮었지. 언제까지 이 어두움이 계속될 수 있을까”³⁸ 이 소녀의 얼굴을 덮고 있는 ‘검은 휘장’은 자신의 생명을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소녀의 트라우마이면서 동시에 5.18의 현재적 존재 방식이 아닐까.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화 같은 언어로는 온전히 해소될 수 없는 5.18의 잔여로서 ‘검은 휘장’이 현재에도 드리워져 있음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갑자기 내가 입을 벌리면 악취 나는 오물이나 흑록색의 벌레들, 번들거리는 가죽에 덮인 파충류가 기어 나올까 봐 무서웠던 거야. (...) 내가 무슨 뭉쓸 비밀이나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입을 쳐다봤어, 나는 그들에게 내 머리를 덮고 있는 장막을 찢어 버려달라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걸 다 보여주겠다고 빌고 싶을 때도 있었지.³⁹

38 위의 책, 321쪽.

39 위의 책, 303쪽.

더 많은 증언을 수집하고, 5.18의 사건성을 새롭게 밝히고자 하는 작업 반대편에 충분히 알 만큼 알게 된 5.18이 되었으니 더는 듣고 싶지 않은 5.18이라는 사건이 존재한다. 소녀는 자신의 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 머리를 덮고 있는 장막을 찢어 버려달라고’ 빌고 싶은 마음도 있다. ‘검은 장막’은 환시로 존재하지만 소녀에게는 ‘현실’로 존재한다. 엄마의 죽음은 단순히 폭력적 국가 권력의 만행의 결과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실존의 현실이다.⁴⁰

어떠한 순간에도 자식에 헌신하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 그 자체라는 모성 신화는 손상을 입는다. 모성은 자녀를 죽음의 세계로 잡아끌고, 근원적인 본능을 드러낸다. 엄마는 죽음의 순간, 자식을 보호하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생명성 그 자체를 현시함으로써 모성에 내재한 파괴적 속성을 드러낸다. 모성 그 자체는 하나의 본능적 생명성을 간직한 개별자의 속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검은 장막은 결코 걷힐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그것이 모성의 실재이자, 5.18의 실재이다. 검은 장막은 언어화될 수 없는 라캉식의 실재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⁴¹ 이 장막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겨온 모성이라는 환상, 그리고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5.18의 개념화에 따라붙어,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미해결의 장으로 남겨진다. 장막을 누군가 찢어주기만 한다면, 그 뒤에 있는 걸 다 보여주겠다고 소녀는 말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없다. 장막은 소녀의 혹은 5.18의 깨져버린 세계 자체다.

어쨌든 이 장막이 모성 신화의 균열과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견고한 모성의 세계가 와해 되는 지점에서 소녀는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5.18의 정신적 외상은 잔혹한 국가폭력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검은 장막은 걷어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곱씹어야 할 우리 안의 ‘어둠’이

40 “이 실재는 우리가 현실에 내린 닳을 잃어버리는 순간 출몰하기 시작하는 통제할 수 없는 환각의 모습으로 분출해 나온다.”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 역,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음과 모음, 2018, 34-35쪽.

41 라캉이 말하는 실재는 상징화될 수 없다. 언어의 질서 안에서 그것은 상실된 무언가로 존재한다. 상징적 구성의 진원지는 실재이며, 우리의 욕망을 추동하는 것도 실재의 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재에 대해서 무언가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니 스타브라카키스, 이병주 역, 『라캉과 정치』, 은행나무, 2006, 125쪽.

다. 공식적 기억으로 5.18이 박제화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아마도 이 검은 장막이 현실에서 이제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예외적 조건 속에서 출현한 낯선 모성은,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특수한’, ‘역사적’ 고통으로 처리해야 할 무언가로 남게 되는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형적인 모성 신화가 여성의 삶 속에서 끝없이 여성성을 붕괴시키는 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성은 이 검은 장막과 함께 사유되어야 한다. 5.18 소설에서 재현된 모성은 생명, 사랑, 헌신 등의 모성 키워드에 죽음과 저주, 폭력과 공허가 들러붙어 있음을 보여준다.

공선옥의 「목마른 계절」(1993)은 5.18을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광주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삶 속에서 5.18은 틈틈이 비어져 나온다. 이혼하고 두 딸을 기르며 소설을 쓰는 ‘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녀는 우연히 만난, 전교조 일로 해직당하고 전업으로 시만 쓰는 시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 “이젠 아줌마도 광주에서 벗어나야 해요. 2,30년대의 신파가 그보다 낫거든요. 한마디로, 아직도 광주? 웬 광주?거든.”⁴² 이는 90년대 초반에 이미 광주는 벗어나야 할, 지겨운 ‘신파’의 소재가 되어버렸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친구가 된 ‘현순’은 딸 ‘유정’이를 혼자 기르며 카페를 운영한다. 그녀가 느닷없이 부르는 노래는 ‘오월의 노래’고, 둘째 아이를 몰래 출산하러 들어간 곳은 ‘5.18에 죽은 귀신들 묻힌 산골짜 동네’였다. 현순의 카페의 종업원 ‘미스 조’의 애인은 5.18 당시 시민군이었으며, 감옥에서 나온 후 병들어 있다. 소설 말미에 애인이 죽자 미스 조는 자살한다. 이처럼 이 소설의 인물들의 삶 속에 5.18은 크게 얽혀 있다.

“역사란 그런 거야. 갑오년이 따로 없고, 기미년이 따로 없다구. 그러드키 오일팔이 따로 있는 게 아냐. (...) 역사는 귀신이여. 귀신은 상관있는 놈도 물고 늘어지지만 상관있는 놈하고 끈이 맺어진 상관없는 놈들도 끌고 가거든. 그것이 바로 역사귀신이거든. 상관없는 년이 어찌다 상관있는 놈을 만나 덜커덕 물린 게라고, 그 귀신한테, 배굼은 귀신한테 잡아먹힌 거

42 공선옥, 「목마른 계절」, 5월문학총서간행위원회 편, 앞의 책, 426쪽.

거든. 거 멋이나, 역사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거거든. 그런 거거
든.”⁴³

현순이 미스 조의 죽음을 전해 듣고 하는 말이다. ‘역사귀신’ 이야기를 듣던 나는 생각한다. ‘왜 죽음으로 시작되어야 해? 역사가 이어지는 건 살기 때문이야. 죽어서는 안 돼. 죽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이을 수도 없는 거야.’⁴⁴ 죽음을 불러들이는 ‘역사귀신’을 들먹이는 현순이 개인의 끝없는 죽음(희생)으로 역사를 이해했다면, ‘나’는 개인의 삶과 생명이 역사를 잇고, 만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 소설이 흥미로운 것은 역사와 인간 삶의 관계를 성찰함에 있어, 모성을 개입시킨다는 점이다. ‘나’와 ‘현순’은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하면 훌륭한 모성 주체는 아니다. 현순은 아이를 방치하여 취학할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신의 딸을 호적에 올리지 않은 엄마이고, ‘나’는 술을 마시느라 때로 아이를 굶기는 등, 부도덕해 보이기도 하는 엄마이다. 이들의 딸들은 모성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상상되는 헌신과 돌봄을 받지 못한다. 도리어 엄마를 건사하는 면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나’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용역회사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생계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엄마이다. 현순이 감방에 가게 되자 ‘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현순의 딸 유정이를 자기 집에서 기르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돌본다. ‘나’는 각별한 애정과 헌신의 자세로 자신의 딸과 친구의 딸을 양육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듯 경이롭게 바라보며, 아이들과 함께 삶(현실)을 공유하는 엄마이다.

숭고한 모성 신화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모성으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억압함으로써, 거추장스러운 모성 신화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여성이 아니다. 엄청난 소음의 세계인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대부분 거택보호자들인 노인들의 잔치가 날마다 열린다. ‘나’는 어느 날 취기 오른 노인들의 춤판 속에서 하느작거리는 현순의 딸 유정을 바라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낀다. 나비와 같은 유정의 존재로 현실에 기입된 ‘생명’의 존재가 주는 기

43 위의 책, 443쪽.

44 위의 책, 444쪽.

뿔을 순간순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녀를 통해, 이 소설은 ‘끔찍한 리얼리티’라 할 고단한 현실 속에서 모성은 약한 듯 보이지만 생명 하나하나의 강렬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라 더릭은 모성적 ‘평화(로움)’가 부드럽고 유화적인 관대함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혹은 아이들을 위해 싸울 때, 아이들에게 타인을 짓밟거나 짓밟히지 않으면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성을 이야기한다. 모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들이야말로 비폭력의 결단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⁴⁵ 모성에게 생명은 관념적인 차원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현실을 살아가는 몸, 그리고 역사적 조건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죽음과 생명에 결부된 모성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된다. 5.18 광주를 다루는 소설 속 ‘모성들’은 집단적, 관념적 모성 신화를 탈신비화한다. 동시에 그것은 공적인 기억으로 표준화, 박제화될지도 모를 5.18의 정치성을 다각적으로 재구성할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5 결론

5.18 소설의 모성은 역사적 피해와 희생의 고통을 상징하는 존재들로 그려진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들의 형상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낳으며 역사적 진실을 찾아야 할 과업을 안겨준다. 하지만 피해자/희생자로서의 모성만이 강조될 때, 우리는 절대적이고 순수한 모성이라는 가정에 함몰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모성 신화는 가부장 중심의 가족체제에 결박된 모성과 여성을 미화시키는 오래된 문법이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현실과 고통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면서 무력감과 좌절감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 광주로 아들을 찾으러 가는 어머니는 ‘거대한 모성’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텅 빈 모성’으로 재현되는 양극적 모성 인식은 가부장적 지배질서 하의 여성의 존재방식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아들과 분리될 수 없는 모성은 아들 상실로 인해 개별 주체성을 상실할 수

45 사라 더릭, 앞의 책, 245쪽.

밖에 없으며, 가족 구성원 중 또 다른 남성들에 의해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나 모성이 이처럼 남성 중심적 체제에 속박된 존재처럼 보인다고 해서 5.18의 모성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제한적이지만 모성이 지닌 요긴한 정치성과 실천적 행위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행위가 모성 신화를 견고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녀들은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신들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이동하는 주체로 나서며 젠더 정체성을 해체하고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노정한다. 직접 시위에 참여하면서 실천과 투쟁의 한복판에서 이전과 다른 개인 주체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발현되거나, 모성의 양심에 따른 반성적인 자기발견의 주체로서 공동체적 시야를 확보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순간에 주목되는 것은 어머니의 몸이다. 5.18 소설에서 모성의 육체성은 실천적, 정치적 결단을 이루는 동인이 된다. 탈장소화된 모성의 몸은 관념화되고 이상화된 몸이 아니라 구획된 경계를 벗어나면서 낮선 장소 속에서 피와 땀, 눈물과 같은 ‘비체’의 존재를 드러내고, 돌발적인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탈장소화된 여성들은 낮선 장소에서 타인들과 접촉하면서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간다. 이처럼 모성은 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윤리적 감각을 획득해가면서 정치성을 체현하는 주체로서 말하고 행위하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그것은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행위에 비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며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감응의 매체로서 모성의 힘은 세다.

또한 5월의 광주를 다룬 소설들은 모성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적으로 모성을 생명성과 자연의 관념과 결부하여, 본능적인 것이자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5.18 소설에서 재현된 모성에는 생명과 사랑과 더불어 죽음과 저주, 폭력과 공허가 공존한다. 모성 주체 역시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식마저 죽음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무자비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일은 반드시 특수한 역사적 사건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 속에서도 엄마 노릇에 충실하지 못하지만 자식을 생명적 존재로 인식하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인간 생명 자체를 새롭게 인식하는 모성 주

체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낯설고도 다채로운 모성은 숭고한 모성 신화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모성의 복수적 존재 양식을 확인시켜 준다. 복수적 존재 양식이 함의하는 바는 단지 모성의 다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적인 행위/실천과 그에 연동하는 감응의 정치력에 관한 것이다.

5.18 소설의 모성 재현은 모성적 시각의 도입으로 남성 중심적 역사의식 및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역사와 인간 삶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모성 주체의 실천성과 정치성은 정치적, 역사적 변혁에서의 주체성을 새롭게 사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불안과 공포, 고통으로 경험된 역사적 현실에서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모성 주체의 실천성과 정치성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문순태 외, 『5월 광주항쟁 소설집-일어서는 땅』, 인동, 1987.
5월 문학총서간행위원회 편, 『5월 문학 총서 2』, 5.18기념재단, 2012.

단행본

조희연·정호기 편, 『5.18 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2009.
사라 더릭, 이해정 역, 『모성적 사유-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철학과 현실사, 2002, 198.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 역, 『실재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음과 모음, 2018.
야니 스타브라카키스, 이병주 역, 『라캉과 정치』, 은행나무, 2006.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재클린 로즈, 이영아 역, 『승배와 혐오-모성이라는 신화에 대하여』, 창비, 2020.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논문

- 강현아, 「5.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2004, 5-40쪽.
- 곽영빈, 「애도의 우울증적 반복강박과 흩어진 사지의 르네모시네 5.18, 사면, 그리고 아비 바르부르크」, 『안과 밖』 제50호, 2021, 308-346쪽.
- 김귀옥, 「5.18민중항쟁 정신을 평화운동으로 계승하고 있는 오월의 여성」, 『여성과 평화』 제6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20, 60-80쪽.
- 김석, 「애도의 부재와 욕망의 좌절」, 『민주주의와 인권』 제1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57-83쪽.
- 김영희, 「5.18 기억서사와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연구』 제18호, 한국여성연구소, 2018, 149-206쪽.
- 심영의, 「5.18 소설의 여성 재현 양상」,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1-31쪽.
- 안혜련, 「5.18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 양상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1호, 2002, 1-21쪽.
- 이경, 「비체와 우울증의 정치학-젠더의 관점으로 5.18 소설 읽기」, 『여성문학연구』 제1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5-105쪽.
- 정일준, 「5.18담론의 변화와 권력-지식 관계」,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4, 103-123쪽.

Abstrac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Motherhood
: A Study of the Representation of Motherhood in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Novels

Jeong Youngjin

This study focuses on how motherhood is represented in novels about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May 18”). In my analysis, I deconstruct the fixed notion of mothers as historical victims and confirm the male-centered dominant cognitive framework behind the motherhood myth while also examining the multiple aspects of motherhood that appear

throughout painful moments in history.

In May 18 novels, mothers are portrayed as people who symbolize painful historical trauma and sacrifice. A mother who lost her son during May 18 loses her individual subjecthood and becomes a dependent being cared for by other men in her family. However, these are not the only representations of May 18 motherhood.

They deconstruct gender identity and expose its instability and fluidity, moving away from their socially allocated spaces and coming forward as the primary subjects of their actions. The image of an individual subject who is different from before is momentarily manifested amid practice and struggle while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demonstrations is revealed, as is the image of those who must secure a community-wise perspective as a reflective subject due to maternal conscience. What demands particular attention at this moment are mother's bodies. In May 18 novels, the physicality of the mother reveals women's pliable nature. Nevertheless, it becomes the driving force in charge of making practical and political decisions. In the motherhood represented in May 18 novels, death, curses, violence, and emptiness coexist alongside life and love. Motherhood also appears as an attribute of an individual with an instinctive vitality. This does not necessarily exist only in specific historical events. It also reveals the image of a maternal subject who recognizes children as living beings in everyday life and recognizes human lives anew within the flow of history. As such, the politics of motherhood in the May 18 novel was constructed through a circuit of ethical sense through body experience. The aspect in which the ethical sense of motherhood is connected to politics shows that political things can be reconstructed based on motherhood/female thinking.

These various maternal subjects reveal the fictionality in the myth of sublime motherhood. In addition, it offers a clue regarding how to reconstruct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meanings of May 18, which may be fixed as public memory. The practicality and politicality of the motherhood/female subject can contribute to seeing its subjectivity anew within political and historical transformation.

Key Words: May 18, Motherhood, Representation, Motherhood Myth, Woman, Body, mobility, Politicality, Ethical sense, Historical Awareness

본 논문은 2022년 7월 21일에 접수되어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8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